

남원 글로벌캠퍼스 조성 '이상 無'

전북대, 남원시와 업무협약... 옛 서남대 부지도 둘러봐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22일 오후 남원시를 찾아 폐교된 서남대 부지 재생을 통한 남원 글로벌캠퍼스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양오봉 총장 일행은 최경식 시장 등을 만나 글로벌캠퍼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재 환경정리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간 옛 서남대 부지를 직접 둘러봤다.

현재 남원시는 올 3월 옛 서남대 캠퍼스 부지 매입을 완료, 남원소재 국유재산과의 부지교환 방식으로 전북대로의 관리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8월 말 전북대 지역발전연구소 산하 남원발전연구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북대는 K-컬처학과와 K-비즈

니스&이코노미 등 유학생 전용학부를 운영하고, 남원 지역에 있는 산업인력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및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위과정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 글로벌캠퍼스 내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해 창업 전라나 실무, 투자유치 등의 상시적 교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평생학습도 책임지는 캠퍼스로 거듭나게 할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국적으로 31곳의 폐교가 있고, 지역마다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남대를 어떻게 업사이클링해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는



전북대학교가 22일 오후 남원시를 찾아 폐교된 서남대 부지 재생을 통한 남원 글로벌캠퍼스의 안정적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며 "남원시와 지속가능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내년에 설립되는 남원 글로벌캠퍼스가 지역발전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시설 호우피해 복구 총력

전북교육청, 예비비 등 30여억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비비 등 30여억원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학교(원)수는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모두 58개교(원)다.

이에 우선적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학교 시설 피해복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특히 운주초는 현재 유치원, 1학년 교실, 돌봄교실 등을 2층으로 이전해 정상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생들의 정상 수업 진행을 위해 시설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포함한 교육지원청, 학교 등 자체 예산을 들여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피해 복구에 신속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교육 현안 대안 찾기 '머리 맞대'

전북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분야별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발제하고, 자유 토의를 통해 교육정책 이해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발표 주제로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이해(우석대학교 강영택 교수) △전북교육협력지구 추진 방향(교육협력과 김성철 장학사) △교육발전특구 추진 방안(정책기획과 박수진 장학사) △특별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덕치중학교 최경원 교사) △농촌학교의 역할과 기능(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원) △마을교육공동체 사례(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 양운신 이사) 등이 있다.



말했다.

이미영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18일 '지역과 함께 특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첫 일정으로 워크숍을 열게 됐다"며 "첫 자리인 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어 "지역교육이 미래교육의 핵심이고, 시대정신"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자문위원, 지역활동가 모두가 전북의 지역교육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특별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전북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기술지주회사

대학기술지주회사 간 협약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18~19일 양일간 '대학기술지주회사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대를 비롯해 영남대, 동아대, 금오공과대, 인하대, 동의대, 국립군산대, 국립순천대 등 실무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술지주회사의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업무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기관 소속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과, 산학연과 협동 연구 등을 도모하고자 이뤄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각 대학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한 상호 호혜적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지주회사 운영 능력 제고 및 전담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지역 과학기술 발전 · 미래인재 양성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협약 체결

공동연구 개발 · 상호발전 위한 인적 교류 등에 적극 협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태식)과 상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및 지원 △과학적 소양을 갖춘 핵심인

재 양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 △협약자 간 상호발전을 위한 인적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태식 회장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현재 600개 단체와 395개 국내 학회를 회원으로 둔 과학기술계 최

대 연합체"라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전북지역의 과학기술 발전과 학생들의 창의적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적 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라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이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어 갈 핵심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치즈과학고, 교육부

현장체험 기획영상 제작 참여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교장 김운하)가 교육부의 현장체험 기획영상 '다매에 교육 한 스펀' 제작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매에 교육 한 스펀'은 어르신이 일일학생이 돼 변화된 교육현장 및 특별체험활동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전북대 반도체 공정 실습교육 '실효'

이수 학생 2명, 삼성전자 반도체 계열 합격... 취업에 도움

전북대학교 LINC3.0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22일 LINC3.0 사업단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도록 매해 방학을 활용해 반도체 공정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전북대 반도체 관련 학과와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구축돼 있는 반도체랩 등에서 해당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실습을 통해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12명의 학생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며 바이오센서 제작과 이론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고감도 질병 진단 센서 개발을 위해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직접 바이오센서를 제작해보고 이를 이용한 진단 스피드도 키웠다.

이 교육을 이수한 김민승(기계설계, 18학번) 학생과 박현(나노바이오, 20학번) 학생이 반도체 직렬로 삼성전자에 합격했다. /장은성 기자

삼성전자에 합격한 학생들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대학 내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이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면접 PT 발표를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철규 연구부총장 겸 LINC 3.0 사업단장은 "우리대학이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 수요에 맞춘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전주대학교 J아트홀에서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문을 여는 영유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현장 관계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9월부터 6개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각 3개 기관을 선정,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6곳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영유아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유보통합모형 구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영유아학교 시범 운영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구현하는 첫걸음이자 유보통합의 비탄직한 통령기관 모델을 발굴, 확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유치원·어린이집 기간 간 운영 방식 및 교육주체 간 교육·돌봄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모두가 행복한 전북형 유보통합기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 전주서 개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등 230여명 참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전주 평화의전당에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 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장애영유아 담당교원 등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장애영유아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장애영유아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교육환경에 따른 실천 경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장애영유아 지원 종합대책 안내 △주제 발표 △사례 발표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워크숍에 앞서 전주 장애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 'WITHUS(위더스)'가 하이든의 놀람교향곡 등 4곡을 연주하며 감동을 선사했다.

이어 백석대학교 박현욱 교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놀이 중심의 협력교수 연구학교 운영 △영아학급 운영의 실제 등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장은성 기자



한편 참석자들은 영유아맞춤형 개별화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유치부 과정 공립 특수학교인 '전주유화학교', 장애 유아와 일반 유아가 한 교실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익산맑은샘유치원'을 방문해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살펴봤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은 장애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유아특수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급식분야 청렴추진제 소통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2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 급식분야 청렴추진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청 급식담당 사무관을 대표로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학교장 등 총 288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청렴추진제는 급식분야 청렴과제 발굴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별 추진체를 통해 발굴한 학교급식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점을 공유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추진제에서는 저경력 학교급식 계약담당자들의 업무 미흡, 식재료 납

품 과정에서 학교와 업체 간의 마찰 발생, 대금결제 지연 등 소극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신규 업무담당자들을 위한 직무-청렴연계 교육 실시, 청렴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절차 안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사후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된 전문강사가 마술로 배우는 청렴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특강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